

## 광주 전남 정치권 세력·세대교체 ... 호남정치 복원 나서라

민주당 심장 호남의원들 연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역량 높이기  
계파정치 휩쓸리지 말고  
새 시대 비전·가치 선점해야

제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심이 지역 정치권의 세력 및 세대교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하면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광주·전남지역 18석을 석권하면서 지역 정치세력이 전원 교체됐고, 이 가운데 13명이 초선 의원이라는 점에서 세대 교체도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당선자들은 그동안 변방에 머물렀던 호남 정치를 복원하고, 그동안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각종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은 무엇보다 21대 국회에서 정국의 이슈를 주도하고, 민주당의 중심에서 민주 진영의 심장이자 텃밭인 호남정치를 복원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4년 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에 실망한 지역 유권자들이 제3지대 정당인 국민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지만, 그동안 민생당과 바른미래, 국민의당 등으로 사분오열하면서 사실상 '호남정치'가 붕괴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1대 국회에 입성할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고질적 병폐인 계파 정치에 휩쓸리지 않고, 확고한 민주당 지지세력인 호남의 바람대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정치적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요구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대승성을 확보해 당내 입지를 넓히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도 이번 광주·전남지역 당선자들이 임기 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노동계가 불참을 선언하



**치유의 숲 ... 희망의 신문** 정성 축령산에 푸르름이 완연하다. 하늘을 향해 직립한 편백나무는 모진 풍상을 이겨낸 현자의 이 미지를 닮았다. 불어오는 바람은 장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같다. 광주일보가 20일로 창사 68돌을 맞았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 비바람에 굴하지 않고 언론 외길을 꿋꿋하게 걸어왔다. 반듯하게 도열한 편백나무처럼, 광주일보는 앞으로도 호남언론의 만행으로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리라 다짐한다. 8mm 렌즈를 통해 아래에서 바라본 편백나무 숲.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면서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일자리 사업과 미래 전남발전 구상의 한 축인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호남 유치에 대 표적이다. 또한,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광주군 공항 이전과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제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광주·전남지역 당선자 대부분이 초선이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서 이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도 상당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지역 18명의 당선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만 챙기

는 '소(小)지역 이기주의'로 사분오열 할 것이 아니라 뜻을 한데 모으고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선자들이 자신들의 입신양명만 생각하고 계파 쫓서기와 지역 내 자리 다툼만 하지 말고, 호남정치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세력·세대교체의 기회를 준 지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초심을 잃지 않고 호남정치 복원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 것 뿐이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창사 68 특집

- 코로나19 최전선에 뛰어든 醫兵들 ▶2면
-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 ▶4·5면
- 5·18 역사 간직 전일빌딩 둘러보니 ▶6면
- 문화로 본 5·18 40주년 ▶10면
-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가다 ▶11면
- 호남의 역사 광주일보가 걸어온 길 ▶12면
- 창사 68년 경제·사회 특집 ▶13~25면

### 광주일보 68 창사기획

#### 100년 신문을 향한 힘찬 도약

68년간 호남의 역사를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와 논평으로 기록해 온 광주일보가 20일 창사기념일을 맞아 지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 지면을 쇄신합니다. 광주일보는 1952년 옛 전남일보로 시작해 1980년 신군부의 언론통제합조치로 광주일보로 제호를 바꾼 이래 한결같이 지역 최고와 최대 종합일간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100년 신문'을 향해 미래 세대를 아우르고, 기성 세대와 함께 하며 호남 대표 언론사로서의 자존과 자긍을 지키겠습니다.

#### '문화도시 광주' 문화면·연예뉴스 강화합니다

온라인 시대에 맞춰 TV프로그램 소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광주를 부각하기 위해 문화면과 젊은 세대들이 즐겨 읽는 연예뉴스를 강화하겠습니다.

#### 이웃들 소식 People&Life 2개 면으로 확대합니다

갈수록 소원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광주일보의 People&Life 지면을 기존 1개 면에서 2개 면으로 확대합니다. 기관, 단체, 기업, 개인 등의 소소한 이야기들은 이제 광주일보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도시브랜드 시대·동네책방·고령화시대 신설합니다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의 미래를 조망하는 기획물 '도시브랜드 시대, 선진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가다'와 개성있는 문화현장으로 자리잡은 '동네책방 나들이', '고령화시대, 노인들이 주인공인 지면을 신설합니다.

#### 전남의 도전과 미래 ... 전남 소식 빠르게 보도합니다

전남의 다양한 소식을 이제 더 많이 더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운 고향, 전남의 발전상을 주목하며, 고향을 지키는 전남인들의 도전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담습니다. 전남을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전북 뉴스까지 더해 생생한 고향 소식을 전합니다.

#### 1면 제호 기념일에 맞춰 다양하게 디자인합니다

1면 제호를 미래세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디자인 개념을 도입합니다. 설이나 추석 연휴, 한글날 등 의미 있는 공휴일이나 기념일 등에는 광주일보만의 의미를 담은 디자인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 '쌈나팔'보다 재미있는 가십기사 발굴합니다

1952년 창사 이래 사회면을 장식하며 재미있는 가십(gossip)으로 정평이 나 있는 '쌈나팔'을 폐지합니다. 인권 침해, 개인 정보 노출 등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을 감안한 결정입니다. 대신 재미있는 박스 기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 호남 정치인 활약상 '여의도 브리핑' 신설합니다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중앙정치 무대의 활약상을 엿볼 수 있는 '여의도 브리핑'을 신설합니다. 지역 국회의원, 장·차관 등 고위관료, 정부 주요 부처 인사 등의 주요 소식, 그들의 활약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인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68 창간68주년 광주일보  
코로나19 위기 극복 광주은행이 함께 하겠습니다!

Since 1968 광주·전남 대표은행  
Korea Brand Power Index 1위  
2020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지방은행 브랜드파워 3년 연속 1위  
2020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내 주요산업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통해 각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인지도 및 영향력을 파악, 이를 지수화한 것으로 소비자의 브랜드 구매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